

칼럼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과 통일정책 토론회

김 윤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오늘은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 주석의 북한이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체제의 나라를 세우고 대립하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 상잔(相殘)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다.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상호 문화개방과 신뢰회복을 하고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하자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남과 북이 격렬히 대립하면서 독재체제를 이어갔고, 1972년 7월 4일 상부의 명을 받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쟁 이후 20년 동안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오직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였다.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은 역사적인 큰 사건이었다.

통일의 길이 열리고 통일이 눈 앞에 다가온듯한 들뜬 꿈은 한낱의 허망한 꿈으로 끝났다. 남한에선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박정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날치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여당이 개헌을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시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 갈 한국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이른바 유신(維新)헌법이 선포되고 장기 독재체제 10월유신을 단행했다.

북한에서도1972년 12월 27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하며,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남북 모두 자신들의 독재체제

의 불안에서 출발했지만,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판문점선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평양선언의 기본과 정신이 되었다.

지난 6월 27일(월),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출입기자포럼(회장 김윤호)이 주최하는 제4회 통일정책 토론회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길은 환하게 열리고 있는가라는 대(大)주제로 열렸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패러다임: 당위와 현실’ 논문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김윤호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이 참여했다. 제2회 백두산평화상은 김연철 통일교육연구원장(전)이 수상했다. 9회 백두산문학상과 제37·38·39·40회 백두산문학 신인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왔다.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전),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전)이 수상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하신 교수들은 모두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나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거나 차기 회장으로 우리나라 통일문제 최고 전문가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메모하고 질의하는 등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통일문제를 국회에서 통일정책 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문 소 희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가며, 피해자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끔 속이는 신종 수법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수법인 지인·가족·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수법부터 낮은 금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출형 보이스피싱, 그리고 최근에는 발신번호까지 조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신종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리 범행수법들을 숙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신종 수법들이 있는데 최근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발신번호 조작’을 이용한 수법이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에 가족의 번호가 떠서 받았더니 범인이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며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원격제에 앱 설치 유도’를 통한 범죄이다. 결제 허위문자를 발송한 후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직접 개인의 계좌에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는 ‘내 구제 대출’ 사기이다. 이 수법은 최근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로 대출이 불가능한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자에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의 대출사기이다. 이 수법의 피해자들은 몇 달 뒤에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으며,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종 수법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문자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된다. 또한 신뢰있는 번호라도 부재중에 남아

있는로 바로 전화를 걸게되면 범인에게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키패드로 눌러서 전화를 걸어야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앱 설치 요청에 응대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 유심칩을 함부로 건네주면 안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되고, 피싱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1132)로 문의하면 된다.

점점 교묘해지고 고도화되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더 이상 범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법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 경찰 역시 신종 수법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 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 고

물놀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김 구 현 담양소방서 곡성119구조대 소방장

해마다 여름철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물놀이 안전사고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인하여 숙박업체나 휴양지 예약이 붐비고 있다. 그만큼 이번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물려들 예정이다. 여름철이 되면서 방송이나 신문 또는 학교에서 생존수영 실습을 진행하는 등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많은 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잘 지켜지지 않아 익사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익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자. 물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다이빙을 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하고, 손과 발, 다리, 몸통(심장) 순으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물 속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음주 후 또는 야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물놀이 사망자 50%가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 사고였다.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이완되어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간 물놀이는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며, 안전근무자도 근무 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야간에 물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보호자 시야에 있는 제한된 깊이의 장소에서 물놀이 하자. 혼자 물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녀를 두었다면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이에게 주의시키고, 아이의 배꼽 아래의 깊이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넷째, 슬리퍼가 아닌 샌들을 신고 물놀이 하기.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물살이 있는 곳에서 맨발로 놀다가 물 속에 돌, 유리조각, 막대기 등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고, 슬리퍼를 신고 물놀이 하다가 슬리퍼가 벗겨져 물살에 떠내려가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깊어지거나 돌에 끼어있는 이끼를 밟아 미끄러져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고 잘 숙지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을 맞이하길 바란다.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김 창 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지난 5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 위반한 승합차량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23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법규 개정과 홍보 등의 관리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져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